

광주, 생산가능인구 15.2% 감소 전남, 1명이 1.03명 먹여 살려야

광주 지역 인구가 2030년 15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 인구는 2013년 현재 176만명에서 2040년 172만명으로 줄어 광주보다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소년 인구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13~2040'에 따르면 광주의 인구는 2013년 151만4000명에서 2025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0년 149만5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143만명으로 낮아져 2013년 대비 8만4000명, 5.6%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2013년 176만1000명에서 2040년 172만6000명으로 3만5000명, 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대비 인구비율도 광주는 3%에서 2.8%로, 전남은 3.5%에서 3.4%로 낮아질 전망이다.

◇저출산 영향 중위연령(평균나이) 증가=출생아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중위연령(총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도 광주는 37세에서 49.4세로, 전남은 45.2세에서 59.4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40년 전국 중위연령 평균 52.6세에 비하면 광주는 3.2세 낮고 전남은 6.8세나 높았다.

중위연령 증가율도 보더라도 광주는 12.4% 증가하고, 전남은 14.2% 높아진 수치로 광주는 비교적 젊은 도시인 반면 전남은 고령도시라는 의미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0~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가 광주는 2013년 25만명에서 2040년 18만명으로 25.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남은 25만4000명에서 16만8000명으로 무려 33.9%가 줄어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6~21세 학령인구도 광주는 32만7000명에서 22만2000명으로, 전남은 32만8000명에서 19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13~2040년 인구 추이

기대수명 男84.5, 女88세

어린이 한명당 노인 4.2명

노년부양비 2배 이상 증가

광주·전남 지역 인구 성비(남자/여자×100)는 광주가 2013년 98.7에서 97.9로 증가하고 전남은 97.6에서 99.9로 늘어 점차 안정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 인구 감소, 고령화 지수=생산가능인구(15~64세) 구성비도 2014년 정점을 이룬 후 2015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는 2014년 115만1000명 73.3%로 정점을 이뤘다가 감소세로 전환돼 2040년에는 83만명(58.1%)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2017년 113만7000명(64.2%)로 증가했다 2040년에는 84만8000명으로 감소하면서 5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광주가 15만4000명에서 41만4000명으로 늘어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37만6000명에서 2040년 71만명으로 급증해 고령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21.3%에서 4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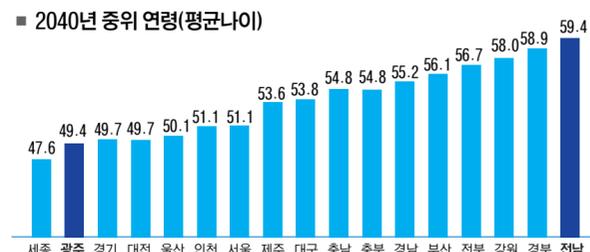
2040년이면 광주 시민들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84.5세, 여자는 88.1세로 2013년보다 각각 6.2세와 4.2세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남은 남자가 83.5세, 여자가 88.7세로 2013년에 비해 각각 6.8세와 4.3세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력 감소로 부양 부담 커져=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광주가 2013년 363명에서 2040년 72.2명으로 늘고, 전남은 55.7명에서 103.5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피양자가 부양자 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1명이 1.03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는 광주가 22.5명에서 22.4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전남은 22.5명에서 19.8명으로 줄어 젊은 인구 감소가 유소년부양비 감소로 나타났다.

노년부양비는 광주가 13.9명에서 49.8명으로 36.0명, 전남은 33.2명에서 83.7명으로 50.4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광주가 61.6명에서 222.9명으로, 전남이 147.8명에서 421.9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이 되면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광주는 3.6배, 전남은 2.8배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김대성기자 bigkim@



1만7500kg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과 삼성전자 임직원 150여명이 11일 오전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지사 다목적강당에서 '201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의 후원(6000만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1만7500kg 김장김치를 담가 광주·전남지역 적십자 희망차량 1051세대, 삼성전자직원 650세대, 보훈청 직원 49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차로 인접하고 규모 1000가구 넘어야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아파트 후보자 평가기준 확정...이주·미분양은 조합이 해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선수촌 유치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1일 "2019년 3월까지 기한 내 선수촌 건립이 가능한 최적 후보지 입지 공모를 위해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후보지 사용 전제조건, 후보지 신청요강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해당 조합이 구청에 신청하고 검토를 거쳐 1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2월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입지기준은 규모와 시간, 교통 등 3가지 분야에서 최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규모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재정비 사업지구로 최소 1000가구가 넘어야

하며, 시간 조건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조합원의 선수촌 사용 동의를 75% 이상 받아야 한다. 교통 조건은 입촌자의 버스수송이 원활하도록 차량 출입구와 접한 도로가 4차로 이상이면 된다.

신개발지의 경우는 2019년 3월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그 면적이 6만㎡ 이상인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 평가기준은 자질없는 대회 개최를 고려해 기한 내 건립 가능성이 70점, 교통편리성 20점, 규모의 적정성 10점 등으로 배정됐다. 기한 내 건립 장애요인(20점), 주민 이주대책(10점), 지원계획의 적정성(10점), 진출입의 용이성(5점) 등은 정성(定性) 평가이며, 추진단계(30점), 건립 규모(10점), 버스수송여건(10점) 등은 정량(定量) 평가다.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공사가 2019년 4월까지 마무리돼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과다요구 논란에 따라 수영대회 선수촌은 선수인계 기간(6개월 이내) 사용료만 지급하고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시공사 선정, 이주대책, 미분양 등 제반적인 문제도 해당 조합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단일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모가 선수와 임원 등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4500가구가 넘고 1순위로 평가되면 이곳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수촌 유치 후보지로는 동구 산수구역, 계림 8지구, 서구 관천 재개발지역, 남구 월산 2지구, 북구 운암주공 3단지, 광산구 송정 우선주공재건축, 신가동 재개발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2019년 7~8월에 열리며, 선수촌은 1만20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내년 1월 실시설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사업이 오는 2022년 확장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1일 "동광주IC~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정부와 사업비 분담 협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초 기본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지난 1973년

에 2차선으로 개통해 1986년 4차선으로 확장했으며, 2013년도 기준 하루평균 통행량이 11만1000대에 이르는 등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2000대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SOC 사업 중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2762억원 가운데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50%씩을 부담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착수에 이어 실시설계를 거친 뒤 오는 2018년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교통량이 많은 용봉IC~서광주IC 구간은 8차로, 나머지 구간은 6차로로 확장된다.

차량류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내년 초 기본설계를 착수에 2022년에는 전면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